



2023년 2호
2023.03.07.

금속노조 교육지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윤장혁 위원장 | 편집 교육실 ☎ (02)2670-9506 | 홈페이지 www.kmwu.kr

[요점] 금속노조 2023년 투쟁계획과 요구 1 올해 노동유연화노조무력화 막고 최저임금·실질임금 올린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27일(월) 5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23년 사업계획과 교섭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날 금속노조는 5월 투쟁과 7월 총파업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유연화 추진과 노조 무력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결의하였다. 금속노조는 올해 어떻게 싸우고 무엇을 요구하나?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인 ①2023년 투쟁계획 ②2023년 교섭방침과 요구(3월 13일 주 발행)를 요약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신는다.

2023년 금속노조 투쟁계획

■ 사업 기조와 목표

2023년 금속노조는 ① 민주노조 사수, 반윤석열 투쟁 전개 ② 전체조직과 함께 조직 확대, 조직강화 ③ 조합원 참여 조직혁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조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을 배치한다.

■ 2023년 투쟁방침

투쟁 슬로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세상을 뒤집자!
	<input type="checkbox"/> 심판! 윤석열 정권
	<input type="checkbox"/> 분쇄! 공안탄압·노동탄압·노동개악
	<input type="checkbox"/> 쟁취! 노동기본권, 민중생존권



투쟁 기조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전개 ② 대중적 투쟁 전면 확산, 노동기본권 쟁취 ③ <u>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u>, 민중생존권 쟁취 ④ 구조조정 저지 투쟁, 총고용 보장 쟁취, 총선의제화 투쟁 본격화
--------------	---

핵심 투쟁 의제	노동계약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input type="checkbox"/> 연장근로시간 확대 폐지 <input type="checkbox"/>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금지 <input type="checkbox"/> 노조할 권리, 노조법 2·3조 개정 <input type="checkbox"/> 중대재해처벌법 사용자 처벌 강화 <input type="checkbox"/>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 폐지
	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 민중생존권 보장	<input type="checkbox"/> 최저임금 계약 중단, <u>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u> <input type="checkbox"/> 주휴수당 폐지 추진 백지화 <input type="checkbox"/> 공적 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input type="checkbox"/> 전가·가스·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 서민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금리 인상에 따른 민생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양질의 일자리 확대	<input type="checkbox"/> 불법파견 근절 및 자회사 확산 규제 <input type="checkbox"/> 인력 총원,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부품사 총고용 보장 대책 마련 <input type="checkbox"/>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 및 정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국가와 자본 책임 강화

■ 2023년 주요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계약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 사업, 노조지부 전 조직적 조직화운동 전개 · 민주노총과 함께 공단사업,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법제도개선 추진 · 2기 미조직전략사업 평가와 3기 미조직전략사업 방향 마련 	조직 확대	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수원 안착화, 교육체계 정비, 지부 역량 강화 ·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간부 역량 강화 및 육성 ·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 강화 · 산업재해 현장 대응 및 위험성 평가사업 강화 · 변화된 조건에 맞는 연구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노조의 발전 과정 진단, 금속노조 발전에 맞는 조직운영체계 마련 · 현장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한 단계별 제도개선, 재정혁신 방안 마련 · 조합원 참여를 통한 산별교섭체계 개선안 마련 ·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조직 질서 확립 	조직 혁신	정치 세력화 · 총선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정치방침, 2024 총선방침 수립에 조직토론 활성화 · 정치교육, 현장 정치사업 강화 · 투쟁을 통한 정치제도 개혁 추진 ·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강화 · 정치위원회 강화와 총선투쟁 태세 구축

■ 일정별 주요 투쟁계획

☑ 4월 19일 1만 간부 총력투쟁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지배개입을 위한 정부 노동계약안 입법예고와 법개정 발의, 노조

감독 및 행정개입을 통한 노조 탄압 등을 진행하겠노라 선전포고하였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금속노조는 4월 19일 서울(또는 세종시 고용노동부)로 1만 확대 간부를 집결시켜 윤석열 정부에 ①노동시간 단축 역주행 정책 폐기 ②저임금 확산, 임금인상 억제 정책 폐기 ③노동안전 위협 정책 폐기 ④ 비정규 외주하청 확산정책 폐기 ⑤노조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노동자 생존권 지키기 금속노조 요구**’ 를 전달한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5월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 5월 총파업 · 총력투쟁 (5월 말 예상)

왜 5월 총파업·총력투쟁인가? 정부 계획대로라면 5월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이중구조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파견제도, 부분 근로자대표제 등에 대한 정부안이 속속 발표됐거나 발표될 시기다. 또한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는 때이며,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치적 쟁점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속노조는 2.27.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5월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5월 투쟁을 ‘노동자, 민중 생존권 지키는 총파업 투쟁’ 으로 만들고, 반윤석열 투쟁 전선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선도적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5월 총력투쟁의 기세를 이어 7월 민주노총의 위력적 총파업 투쟁으로 힘을 모어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 방식 등은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

☑ 7월 민주노총 총파업 (7월 10일 주)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이며, 이를 통해 체제 전환을 위한 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의회 권력의 판을 바꾸는 총선,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금속노조는 5월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힘을 전체 노동전선으로 확대하고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계약 저지를 중심으로 한 2023년 통일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힘 있는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참고 영상 · 금속노조 57차 정기대의원대회 영상
<금속노조, 2023 세상을 뒤집자> (2023.2.27., 2분21초)
<https://youtu.be/hVUu3cvVn40>



· 3월 15일, 17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조합원 의무교육(2023년 정세와 투쟁) 강사단훈련을 진행합니다. 소속 지부 통해 10일(금)까지 신청 완료하시고, 권역별 참가 일자 등은 홈페이지 공문철 확인 바랍니다. (교육실 ☎02-2670-9561)